

‘10·16 재선거’ 영광·곡성군수 선거전 ‘조기 점화’

곡성, 유근기 전 군수 출마선언
자천타천 9명 거론...경쟁 치열
영광, 민주·조국당 등 11명 입지
정기호 전 군수 출마 여부 관심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가 조기 점화되고 있다.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상철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강종만 영광군수도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정섭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특히 강 전 군수의 경우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영광군수에 당선됐다가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잃은 바 있어 이번이 두번째 군수직 상실이다.

곡성은 이미 자천타천 최대 10여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영광도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이들이 표발 다지기에 나섰다.

유근기 전 곡성군수는 이날 군민회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재선거 행정 경험을 살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소멸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곡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유 전 군수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타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3선 곡성군의회를 지낸 강대광 전 의원이 복당 결정 이후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정환대 전 전남도의원도 선거전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이재호 전 곡성군의회,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 등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후보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군수 도전만 3번째인 무소속 조상래 전 전남도의회를 비롯 무소속 이성로 전 목포대학교 교수, 무소속 박웅두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 조국혁신당 손경수 전 죽곡면주민자치회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영광은 무려 11명에 달하는 입지자들

이 나서고 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이 나섰다. 강 군의장은 군의원 9선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이 강점이며, 장세일 도의원은 오는 12일 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영광군수 재선거 행보를 시작한다. 이동권 전 도의원도 광역선거에서 성공한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장현 전 호남대 교수는 중앙과 지방에 걸친 폭넓은 지지기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한군 영광군의회 부의장도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고 농업으로 성공 신화를 썼다는 양재희씨도 출마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후보는 3명이다. 김영복 전 수협조합장과 군서면 출신인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김영복 전 수협조합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법성면 출신으로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오광덕씨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군서면 출신 정원식 박사로 출마를 앞두고 한국전쟁 당시 영광지역 양민학살 사건을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또 군남 출신 김기열씨와 강종만 전 군수의 부인 김화순씨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영광군수를 지낸 뒤 강진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호씨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정기호 원장은 지난 2008년 전임자 강종만 전 영광군수의 뇌물수수죄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이후 2019년부터 강진의료원장으로 부임해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광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출마 권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아직 선거까지 3개월 가량 남은 상태에서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공천 등이 결정되면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적으로는 각 지역별 5명 내외가 본선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병하·곡성-김대영·영광-김도윤 기자



조선대 섬머스쿨 몽골 예비유학생 조선대학교 'CSU Summer School'에 참가한 몽골 조선대 자매학교 재학생 211명이 3일 조선대 창작마을센터에서 열린 메이커스페이스 체험에서 승화전사 작업으로 제작한 머그컵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번 예비 유학생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 여수 아쿠아 플라넷 관람 및 해양스포츠 체험,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 체험을 한다. 김양배 기자

GGM, 전기차 ‘캐스퍼 EV’ 생산 25% 더 늘린다

15일 첫선... 막바지 양산 준비
하반기 1만7천→2만1천대 증산
가동률 증가... 일자리 확대 기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15일부터 전기차 ‘캐스퍼 EV’ 양산에 본격 들어가는 가운데 당초 생산량보다 25% 이상 늘리기로 해 지역경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GGM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부터 캐스퍼 EV 300여대를 시험생산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행양산에서 무결점 최고 품질을 확보해 오는 15일부터 동급 최고 수준의 캐스퍼 EV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경영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대

자동차와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최소 4000대 이상의 캐스퍼 EV 증산을 약속하고 상생협회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향후 생산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만7000대를 생산할 예정이었던 전기차는 당초 계획보다 4000여대(25%) 늘어난 최소 2만1000대 이상을 생산하게 됐다.

공장 가동률 증가와 함께 향후 임금이 나 일자리 창출 등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개된 캐스퍼 EV는 SUV의 단단한 이미지와 확장된 실내 공간, 주행 안정성 등을 갖춘 데다 1회 충전 시 315km에 달하는 항속 거리를 확보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멀리 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캐스퍼 EV 생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임직원이 하나도 푼풀 못쳐 성공 양산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생산을 당초 계획보다 25% 이상 증산하기로 함으로써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면서 전기차 양산에 성공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형 일자리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주민에게 한 걸음 더, 치안 친절을 한번 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으로 도민이 행복한 안전전남을 만들어 갑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과학 치안 기반의
미래범죄예방

주민 참여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 확대